

한번 듣고
해탈하는
수행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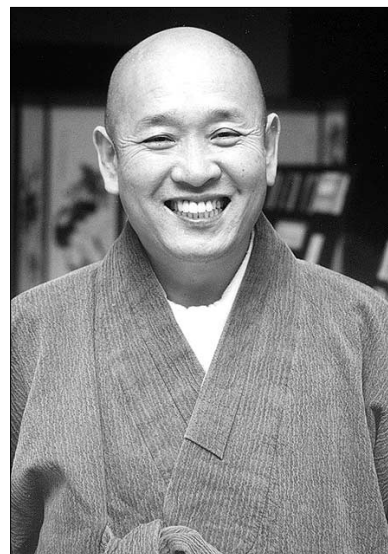
‘티베트 그 비밀의 만트라 속으로’
황엽 지음
도피아사 / 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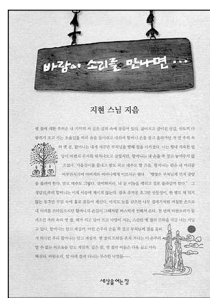
〈티베트 그 비밀의 만트라 속으로〉는 ‘그곳에 가면 한번 듣는 것만으로도 해탈에 이르는 수행법이 있다’는 말 한마디에 과감히 일상을 접고 티베트로 떠난 시인 황엽 씨의 티베트 불교 체험기다.

문학잡지 <문학예술>을 발행하던 지은이는 1997년 ‘스스로를 전율케 하는 무엇인가가 내면에서 솟구치는 젊은이처럼’ 깨달음의 길을 찾아 떠났다. 중국 시닝(西寧)에서 당시 린포체를 만나 ‘1년에 40만 번의 오체투지’라는 입문과제를 통과한 후 스승으로부터 ‘명심하거라. 세상에 한 번만 듣고 해탈에 이르는 법은 없다. 살아 있을 때 부처처럼 <바르도 퇴돌(티베트 사자의 세)>을 깔고 뛰어라 한다’는 말을 듣고 본격적인 가르침을 받기 시작한다. 이후 40년 간 동굴에서 밀실수행을 하고 있는 추임도제 린포체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지은이는 자신의 수행담과 밀법수행이란 무엇인지를 들려준다.

경운기 타고 마을로 내려온 스님



‘바람이 소리를 만나면’
지현 스님 지음
세상을 여는 창 / 9천5백원



에서 엿볼 수 있듯이 스님의 지역 포교에 대한 열정은 남다르다. 최근 선보인 <바람이 소리를 만나면>은 깎아지른 절벽 위에서 다 쓰러져 가던 청량사를 손수 고치고,

청량사의 사계절 모습과
따뜻한 주민들의 이야기

그 절을 농촌불자들을 위한 포교 중심도량으로 키워 온 지현 스님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다. 스님은 책에서 청량사의 불 여를 겨울의 모습과 절 아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일 년에 딱 하루, 초파일이면 어김없이

경북 봉화군 청량사 사하촌의 주말. 경운기 한 대가 마을을 지나가자 아이들이 소리를 지른다. “스님! 오늘은 저희 집에도 오주세요.” 길이 멀어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직접 경운기를 끌고 집집마다 찾아가는 ‘방문법회’와 가까운 곳에 사찰이 없어 절에 갈 수 없었던 농촌 불자들을 위해 마을 회관을 빌려 ‘출장법회’를 열고 있는 청량사 주지 지현(사진) 스님. ‘마을로 내려온 스님’이라는 애칭

청량사를 찾은 맹인 김 거사와 휴가 나온 손자의 등에 업혀 사찰을 찾아 온 대월심 보살, 농사가 끝나면 수확한 쌀과 배추, 무 등을 지고 와 부처님께 올리는 고제리 불자 부부 등 사하촌 사람들의 사연이 담겨 있다.

또한 스님은 산사에 핀 목련꽃에서 “자신의 생명이 다하여 당장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주어진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살아 있는 우리의 의무”임을 깨닫기도 하고, 수해로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정치판을 준엄하게 꾸짖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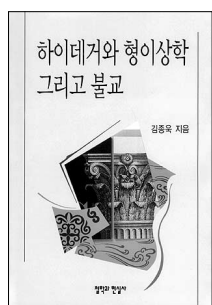
청량사를 이야기하며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산사음악회다.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매년 전국에서 5천여 명이 몰려들 정도로 그 열기가 대단하다. 지현 스님이 ‘받는 불교’에서 ‘주는 불교’를 지향한다는 뜻으로 종교적 색채를 최소화시키고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문화축제로 꾸미기 때문이다.

영주장애인복지관장으로, 창작 찬불가를 제작 보급하는 ‘좋은 벗 풍경소리’의 총재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 스님이지만 산사음악회에서 지역민들과 마주 앉아 함께 손뼉을 치며 노래 부르는 모습에서 “노래 한 자락에 웃고 울며 화답하는 모든 청중들이 곧 부처고 보살”이라는 스님의 뜻을 읽을 수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하이데거와 禪의 관계는 ...

‘하이데거와 형이상학...’
김종욱 지음
철학과 현실사 / 1만2천원



“존재야말로 사유의 근원 테마”

불교의 선(禪)을 학문적으로 가장 깊이 천착한 서양 철학자로 평가받는 하이데거의 사상을 해석한 두 권의 책이 잇달아 선보였다. 동국대 불교학과 김종욱 교수의 <하이데거와 형이상학 그리고 불교>와 ‘목수 철학자’인 최경호 씨가 쓴 <존재에서 규명한 선>이 그것이다.

불교사상을 서양철학과 접목시켜 불교의 현대적 의미를 밝혀려는 작업을 일관되게 추구해 온 김종욱 교수의 <하이데거와 형이상학 그리고 불교>는 “전통 형이상학에 대한 하이데거의 비판을 추적하면서 서양 철학의 근본 성격을 재검토해 보고, 이것이 불교 사상과 어떤 맥락에서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들 탐문해 보기 위한” 책이다.

수년에 걸쳐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해 책으로 엮은 김 교수는 “존재야말로 사유의 가장 근원적인 테마이고, 이런 근원적인 사유의 사태를 서구 사상의 전체 역사 속에 집어넣어 탐문했다는 점은 하이데거 철학의 깊이와 진폭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고 말한다.

1부 ‘존재론적 차이와 형이상학’에서는 ‘존재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갖는 의미와 형이상학과 존재론적 차이를 밝히고 있다. 2부 ‘근대 형이상학의 비판’은 데카르트 형이상학의 존재론적 이해와 형이상학적 주체의 형성과 해체를 다루고 있다. 3부 ‘하이데거와 불교’에서는 하이데거의 ‘무(無) 사상과 불교의 ‘공(空) 사상이 어떻게

같이 다른지를 살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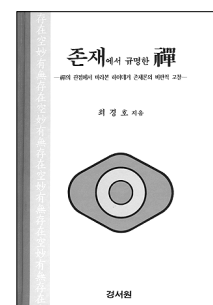
<존재에서 규명한 선>은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선(禪)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한 책이다. <후설사상의 발달> <신체의 현상학>등 4권의 철학서를 번역하고 <현상학적 지평에서 규명한 선>을 펴내기도 한 최경호 씨는 이번 책에서 ‘선에 있어서 존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선을 체험에 바탕을 둔 이론으로 존재를 규명하고자 했다”는 지은이는 “하이데거 철학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선의 경지에 들어서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지난 2년간 출퇴근하는 지하철과 공사 현장에서 틈틈이 메모한 4천매 분량의 원고를 책으로 묶은 지은이는 “존재에 의한 사유의 과정은 선의 입장에서 조명한 존재의 사유를 진술한 것이 하이데거의 존재의 사유를 논한 것이 아니다”며 “하이데거의 주제를 다루면서도 결코 하이데거의 사상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고찰하여 적어내려고 했다”고 말한다.

1부에서는 직접체험으로서의 선체험을 기술하고, 2부에서는 선을 하나의 학문으로 다루는 방법론으로서의 현상학과 해석학을 설명하고 있다. 3부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에 있어 존재의 사유에 관한 비판적인 고찰을 담고 있다.

여수령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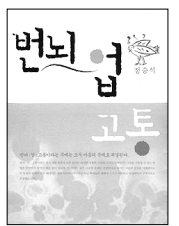
‘존재에서 규명한 선’
최경호 지음
경서원 / 3만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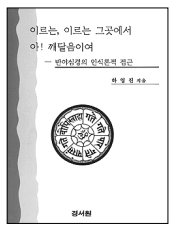
“선 체험을 통해 존재 밝힌다”

새로나온 책

■ <번뇌 업 고통>(정승석 지음, 민족사, 8천5백원)= <인간을 생각하는 다섯 가지 주제>의 개정판. ‘끊임없이 발동하는 속마음 번뇌, 생사 윤회의 질긴 끈, 극복해야 할 삶의 진상 고통’이란 주제들을 그리 어렵지 않게 밝히고 있는 지은이는 “번뇌와 업, 고통이라는 주제는 모두 마음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말한다.



■ <이르는, 이르는 그곳에서 아 깨달음이여>(하영진 지음, 경서원, 9천원)= <반야심경>에 인식론적으로 접근한 책. ‘나’라는 인식자를 철학의 전면에 등장시킨 데카르트와 이를 완성시킨 칸트의 철학을 소개하고 이들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살펴 보았다.



■ <리더의 아침을 여는 책>(김정빈 지음, 동쪽나라, 1만8천원)= <리더의 아침을 여는 책>은 세종대왕과 조조를 비롯해 에디슨, 베토벤 등 자신의 삶을 방식을 개혁하고 시대를 이끈 리더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일깨워준다.



■ <아기는 뱃속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이계가와 아키라 지음, 김경옥 옮김, 산티, 8천5백원)= 산부인과 의사인 지은이는 어린이 8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아이들이 뱃속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책에서는 태아와 부모의 관계, 출산의 의미와 방식, 아이 키우기에 관한 지은이의 노하우가 담겨있다.



금주의 베스트북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탁났한 스님의 반야심경	탁났한	장경각
2	산문	현진 스님	열림원
3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공사
4	이거용의 인도사원순례	이거용	한길사
5	법상에 도가 있다	정세채	모색
6	완벽한 참선법	우학 스님	좋은인연
7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	대림 스님	초기불연구원
8	살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	해봉 거사	불광
9	금강경	우통 스님	효림
10	백제간두에서 한 걸음 더	법진 스님	조계종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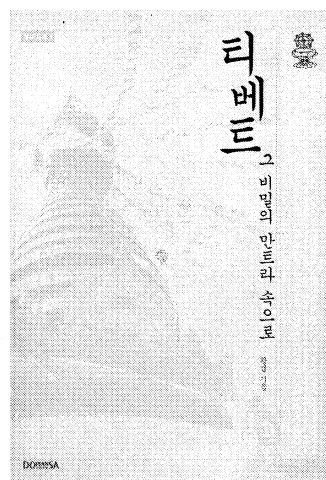
도서 안내: (02)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에시이문 전화: (02)737-0695

到·彼·岸·社·의·雪·域·高·原·시·리·즈

티베트 민족의 고난은 ‘인류를 구하라’는 부촉

화제의 신간



티베트 그 비밀의 만트라 속으로

여기 티베트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과 진심이 무엇인지를 낱말이 밝혀 주는 고백서가 나왔다. 시인이자 월간 ‘문학과 예술’의 발행인이기도 했던 황엽은 6년 전 어느 날, 지금까지의 삶을 180도 바꾸어 티베트 행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스승을 찾았고, 명에 따라 40만 배(拜)의 오체투지로 입문식을 마치고 그들의 정신세계로 폭 안겼다. 이 고백서는 시인의 영감으로, 지성으로, 온 몸으로 써 내려간 티베트 정신의 현주소다. 단지 보고들은 여행기가 아닌 체험으로 직관한 티베트 사람들의 내면이다.

※ 티베트 관련 단체에서 10권 이상 구입할 경우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글·황엽 / 신국판 / 384쪽 / 값12,000원

티베트의 정신과 자연을 소개하는 책

티베트 금강경

— 까말라리광 석

●양승규 옮김 ●238쪽 ●값 9,000원

티베트의 신비와 명상

— 포탈라에서 수미산까지

●글·김규현 ●416쪽 ●올림퍼 ●값 17,000원

지도의 공백지대를 가다

— 티베트 8만 Km

●글·박철암 ●384쪽 ●올림퍼 ●값 15,000원

*독서는 깨달음의 길'의 도서출판
DOPPIANSA 전화: 031-676-8700 전송: 031-676-8704
E-mail: doppiansa@kornet.net